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 축하 행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추석이나 설날등, 옛부터 내려온 행사도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벤트(행사)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서 12월까지 각각의 월중에 하루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월14일은 ‘발렌타인데이’ 라든지 3월14일은 ‘화이트 데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당신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빼빼로 데이’는 어떠세요?(알고 계십니까?) 물론 한국에서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한국은 ‘빼빼로 데이’였습니다. 어제는 11월11일이었죠. ‘1’이라는 숫자가 4개 있었습니다. ‘빼빼로 데이’는 이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빼빼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빼빼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과자 이름입니다. 길이는 15cm 정도로 얇습니다. 마치 봉(막대기)처럼 보입니다. 길이의 약 4분의 3은 초콜렛으로 덮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밖에 아몬드나 땅콩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빼빼로라는 과자는 봉처럼 길고 얇기 때문에 숫자 1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년중에서 숫자1이 네 번 겹치는 날이 드물고, 단 하루 밖에 없기 때문에 11월11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빼빼로 데이’라고. 그래서 친구나 가족에게 빼빼로를 선물합니다. 이날, 거리의 여기저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빼빼로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외에, 장미나 백합을 주는 날도 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까만 ‘짜장면(중화요리 이름)’을 먹는 날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렇게 재밌는 날들이 점점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속에서. 이것은 우리들의 부모님과과는 다르게, 우리들, 다시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레저 활동이나 즐기는 데에 보다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요?